

# 명인·명장·예술인 뭉쳤다

### ‘배달문화선양회’ 창립 송순섭·정관채씨 등 회원 40여명 전통문화 계승·발전 방안 모색

‘문화 수도’를 꿈꾸는 광주·전남, ‘예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문화적 토양은 어느 지역 보다 비옥하지만 전통문화 인프라는 미약하기만 하다. 전문 인력 양성과 선조들의 빛나는 유산을 지켜나가려는 노력도 미흡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명인·명장·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일 화순군 이서면 적벽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배달문화선양회가 그 모태다. 40여명의 회원들은 수십년동안 한 분야에서 전통문화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 맥을 이어온 장인(匠人)들이다. 고건축과 국악, 한복, 전각, 석공예, 전통무예, 민속연, 도예, 민족생활의학 등 전공분야도 다채롭다. 민속학과 향토사 연구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지난 2002년 ‘적벽가’로 중요무형문화재에 선정된 명창 송순섭(70)씨는 광주시립국악단장을 맡고 있다. 올해로 ‘소리 인생’ 50년을 맞아 국극단의 새로운 창극 작품 작업과 기념 공연을 준비 중이다.

정관채씨는 지난 2001년 전통 쪽염색



20일 화순군 이서면 적벽 망향정에서 열린 ‘배달문화선양회 창립총회 및 통일기원 천제’에서 회원들이 전통 ‘다물무예’를 감상하고 있다. <배달문화선양회 제공>

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染色匠)에 지정된 명인이며,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설장구) 기능보유자인 김동연(66)씨도 참여했다.

신상철 전남도립국악단장과 이대후 광주국악협회장, 고건축 도관수(우두머리목수)인 윤정우씨, 24반무예 경당 대표인 임동규씨, 시인 김준태씨도 회원이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창립선언문’을 통해 호남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고 계승·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 제시, 회원 전시·공연·발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장두석(70)씨는 “선현들의 빛나는 삶의 지혜와 전통문화를 후손들에게 전승시키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이날 적벽동헌 망향정에서 민족화합을 위한 천제를 봉행하고 회원들의 작품 감상과 사물놀이, 설장구, 전통무용 등 공연을 함께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 제시, 회원 전시·공연·발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장두석(70)씨는 “선현들의 빛나는 삶의 지혜와 전통문화를 후손들에게 전승시키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이날 적벽동헌 망향정에서 민족화합을 위한 천제를 봉행하고 회원들의 작품 감상과 사물놀이, 설장구, 전통무용 등 공연을 함께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스미스소니언박물관 한국관 개관 기념전

주미한국대사관서·손봉채·이이남씨 등 광주비엔날레 작가 참여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이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한국관’ 개관 기념전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 비엔날레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젊은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달 1~15일까지 2주 동안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룸에서 열린다.

‘풍경 밖의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개관 기념전에는 비엔날레 참여작가 이이남, 손봉채씨와 해남에서 활동 중인 한중근씨가 참가, 모두 3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영상 작가 이이남씨는 일상적인 오브제인 낚시, 코트 등 추위 속의 사물들을 소재로한 영상작업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또 명화로 불리는 작품들을 동영상 기법으로 재해석한 ‘묵죽도’와 모네의 ‘해돋이 인상’ 등을 전시한다.

설치 작가 손봉채씨는 스냅 사진과도 같은 풍경들을 필름작업에 담아 관객들에게 잃어버린 과거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손



손봉채 작 ‘잃어버린 시간’

씨의 작업은 현대인들이 잊고 지냈던 편안함과 여유, 느낌의 미학을 일깨운다.

한중근씨는 기쁨, 분노, 원망, 즐거움 등 희로애락을 형상화한 인물군들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을 돌아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비보이와 국악의 만남

시립국악관현악단 ‘베이지 크루’ 초청

광주에서 활동하는 비보이 그룹 ‘베이지 크루’(사진)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22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제45회 정기연주회에 베이지 크루를 초청, 박경오·김선재씨가 작곡한 ‘비보이를 위한 국악관현악-대지’를 연주한다.

또 작곡가 황호준씨에게 위촉한 관현악곡 ‘빛의나라’가 초연되며 ‘탱댄스’를 위한 국악관현악곡-Tap, Sing, Sing, Sing, 打(타)도 선사한다. 문의 062-510-9342.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십 어린이 찾은 ‘책 마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안도군 군민회관에서 낙도 어린이 230여명과 교사 및 학부모 모임을 초청해 ‘제1회 BK(Book Kids) 07 이동 북페어’ 행사를 개최한다.

### 22일 안도서 ‘제1회 BK 07’ 이동 북페어 십 초등학교 1학년생 초청...학급문고 기증

행사 참가 어린이들은 신지도, 금일도 등 안도군에 소재한 14개 십의 17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다. 주최 측은 17개 학교의 1학년 한 학급 당 50권 씩 총 850권의 학급문고를 기증한다.

기증식에 이어 동화 ‘강아지뽕’ 인형극 관람, 독서퀴즈, 책 고르는 법 강의 등이 이어지며, 청주 초롱

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이 ‘아이와 함께 하는 책읽기’를 주제로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독서강연회를 가진다.

안도군민회관 앞마당에서는 ‘좋은 책읽기가족모임’의 구연동화를 비롯한 매직프린트 만들기, 캐릭터 ‘책뽕’와

함께 즉석사진 찍기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BK 07”은 초등학교 1학년인 만 7세 어린이들에게 양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선된 50권의 책을 1학년 한 학급에 기증하는 사업이다. 문의 02-2669-0754.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비리 미술대전’ 이제 그만

“우리 아버지가 쿠르베(사실주의 대가)의 작품을 비롯했던 오늘 우리는 그를 보며 경탄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네의 작품을 보며 욕을 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들은 그의 작품을 보면서 예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866년 에두아르 마네(1832~1883)의 대표작 ‘피리부는 소년’이 살롱전에서 낙선하자 젊은 소설가 에밀 졸라는 일간지 ‘레벤느랑’에 이같이 기고했다. 졸라는 살롱전 심사위원 28명을 일일이 거명하며 ‘걸작’을 몰라 본 이들의 안목을 거세게 비난했다.

19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활동한 대다수 화가들의 꿈은 국전(國展)인 살롱전(Le Salon de Paris)에 작품을 내는 것이었다. 프랑스 왕립 미술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살롱전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그림을 팔 수 있는 유일한 통용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성이 강한 심사위원들은 실험정신이 번득이는 작품을 쳐주지 않았다. 색채의 미묘한 변화 속에 자연을 묘사한 마네의 ‘피리부는 소년’이나 ‘풀밭 위의 점심’이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공모전을 둘러싼 잡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듯하다.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는 구태의연한 잣대는 예나 지금이나 늘 도마에 오른다.

그러나 최근 ‘한국관 살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비리는 그 정도를 넘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때 후배·제자에게 돈을 받고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넣어 작품을 입상시켜 준 혐의로 미술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심사위원들을 모델에 모아놓고 자신들이 팔아놓은 작품들을 사진으로 보여준 후 위유에 한 다음 입상작을 ‘낙점’하도록 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상당수 지역 미술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가 더하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번 사태를 접한 미술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유인즉슨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심사비리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심사와 관련된 비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술계에서는 “입선이 되려면 300만~500만원, 특선이 되려면 1천500만~2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뇌물 수수가 만연해 있다. 오죽했으면 ‘공모전=뇌물대전’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현대미술의 최신 흐름을 따라가기는 커녕 옛 단거리 미술계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공모전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등용문이 부족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화랑과 미술관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만약 이번에도 예전처럼 몇 마디 사과로 어쩔쩔 넘어간다면 안될 일이다. 공모전이 미술인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공모전이 신인발굴은 고사하고, 미술계의 ‘공공의 적’이 돼서야 되겠는가?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 제52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 성악

심사위원  
윤현주교수(서울대)  
강숙자교수(전남대)  
이은철교수(전남과학대)  
임해철교수(호남신학대)  
박미애교수(광주대)

- ◇ 중등부
  - ▲ 금상 14 김자윤(광주동신여자3)
  - 15 서인선(광주동신여자3)
  - ▲ 은상 2 임진선(순천동신여자2)
  - 3 조인화(목포제일1)
  - 17 유슬기(광주경신3)
  - ▲ 동상 6 심한나(송의3)
  - 19 오지은(순천팔마3)

- ◇ 고등부
  - ▲ 최고상 44 안세권(완도3)
  - ▲ 금상 19 박진성(광주예술2)

- 47 정연(광주예술3)
  - ▲ 은상 4 이소영(광주인성3)
  - 35 박성근(광주송일3)
  - 39 황준민(창평3)
  - 52 조설원(광주예술3)
  - 54 지현주(부영여자3)
  - 58 김소희(전남여자상업3)
  - 67 감미수(순천매산여자2)
  - ▲ 동상 6 이가연(광주예술1)
  - 9 정서정(대성여자2)
  - 22 김진석(광주예술2)
  - 23 송지연(광주예술2)
  - 24 김세희(광주예술2)
  - 29 김슬기(광주예술2)
  - 30 반혜경(광주예술2)
  - 31 서혜원(담양2)
  - 43 장은지(광주경신여자3)
  - 51 김아라(광주예술3)
  - 55 김인경(부영여자3)
  - 68 임승준(여양2)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5월 25일까지 본사 문화사업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원단약국사거리 ♡에메1544-0600

M	관 스파이더맨3 (12세/디지털)	최고등급
2	관 스위트 맨 (12세)	
3	관 눈물이 주룩주룩 (12세)	
4	관 스파이더맨3 (12세)	
5	관 넥스트 (12세)	
6	관 리핑-10개의 재앙 (15세)	
7	관 내일의 기억 / 스파이더맨3 (12세)	
8	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9	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가 편리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	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2	관 넘버23 (15세)
3	관 아들 (전세)
4	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5	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전세)
6	관 날아라 허둥구 (전세)
7	관 스파이더맨3 (12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항동시영 영화시영 \*에메:www.joycbs.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

1	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2	관 <어린이전용관>저하늘에도 슬픔이 (전세)
3	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4	관 넥스트 (12세)
5	관 아들 (전세)
6	관 눈물이 주룩주룩 (12세)
7	관 스파이더맨3 (12세)
8	관 홍호문 (12세) / 내일의 기억 (12세)
9	관 스파이더맨3 (12세)
10	관 스파이더맨3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7관) 점선리 상영중 상무점연결 뷔페 (11번 or 2번) → 1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	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2	관 눈물이 주룩주룩 (12세)
3	관 스파이더맨 (12세)
4	관 스파이더맨 (12세)
5	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6	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7	관 더를 타겟 / 홍호문 (12세)
8	관 리핑 (15세) / 아들 (전세)
9	관 넥스트 (12세)

\* 리비시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타임스퀘어 회원만을 위한 전용주차 미연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	관 스파이더맨 3 (12세)
2	관 스파이더맨 3 (12세)
3	관 넥스트 (15세)
4	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5	관 못말리는 결혼 (12세) / 리핑 (15세)
6	관 아들 (전세) /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셋이 남잔 아직 몰라요  
SWITZ MAN

동심으로 그려가는 작은 희망 행진곡  
저 하늘에도 슬픔이...

눈물 주룩주룩

파는물나는 상견례가 시작된다!  
못말리는 결혼

스파이더맨 3